

# 간호대학생의 인지하는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이 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

김영희<sup>1</sup>, 권영채<sup>2\*</sup>

<sup>1</sup>위덕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가야대학교 간호학과

## The Effect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on Nurse image, in Nursing Students Perceive

Young-Hee Kim<sup>1</sup>, Young-Chae Kwon<sup>2\*</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Uiduk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이미지,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간호 대학생 4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t regression)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간호사이미지는 5점 만점에 3.82점,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2.64점,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3.76점, 진로정체감은 4점 만점에 2.59점으로 나타났으며, 변수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간호사이미지에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33.2%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따르면 간호대학생들은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이 간호사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간호학의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적인 진로정체감을 향상 및 개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간호사이미지,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nurse image,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fy of nursing students perceive. The participants of 410 subjects, data was analyzed using t-test, ANOVA, multiple linear regression with the SPSS/WIN 20.0 program. The results: The mean score of nurse image(3.82), self-esteem(2.64), major satisfaction(3.76), career identity(2.64) were abve the average. Nurse image,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The results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variables of self - 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had an explanatory power(Adj R2=33.2% )on image of nurses. Study results suggested that, we propose a program for establishing a positive nurse image to improve the self - 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e students, Nurse image,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급격히 변화하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간호사는 전문직

으로서의 위상과 학문적 발전을 꾸준히 이루어 왔으며 [1], 환자 치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2,3]. 이러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간호사 이미지는 의료대상자에게 전문가로서 믿음과 신뢰를 갖게

\*Corresponding Author : Young-Chae Kwon (nahante55@hanmail.net)

Received November 28, 2017

Accepted February 20, 2018

Revised January 24,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정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1].

간호사 이미지란 간호사 자신이 간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 뿐 아니라 보건의료전문인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의료 대상자가 간호와 간호사에 대해 품고 있는 느낌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 형성은 간호에 대한 긍지, 소명감과 전공에 대한 만족감 및 간호전문직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1,4]. 간호 대학생이 인지하는 간호사의 이미지는 학과 선택 시 이미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간호 대학생은 주로 대중매체나 지인을 통하여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된다. 간호대학 입학 초기에는 간호 이미지에 대해 대중들과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간호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간호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며 간호교육과정에서 간호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 신념, 윤리적 표준 등을 내면화하고 이를 본인의 이미지와 행동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다[5]. 그리고 간호학생들은 간호교육 과정을 통하여 간호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간호 역할 수행과정이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다. 긍정적인 자아상은 간호사 자신이 일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임상이나 지역사회 등 간호현장에서 전문인으로서 자존감을 갖게 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정체감 발달 및 자아실현을 위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6].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중하며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로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존경, 신뢰, 돌봄을 받을 때 강화되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이 대학생활 적응은 높게 나타났으며[7,8],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전공학과 직업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 학업성취감을 얻고, 그 성취감은 직업적 확신과 발전을 추구 할 것이므로 학생들의 정체감, 인생감, 사회적 가치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9].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고 만족하는 정도로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교생활과 교과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학과수업에 헌신적이라고 하였다[10,11]. 이러한 전공만족도는 전공 관련 학습수행능력파 문제해결능력 및 간호대학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직업과 관련된 과제 및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3].

진로정체감은 직업영역과 관련된 자아정체감으로 자신의 목표, 흥미 그리고 재능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의미하고[14], 간호학을 선택하여 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간호 대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자기 확신정도는 향후 간호직 업무수행능력이나 직업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영향을 미친다[15].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간호학 전공을 선택하고 간호사이라는 직업 선택과 관련된 진로결정에 있어 명확한 확신감을 준다[16].

일반적으로 간호대학생의 경우 타 전공 학생들과 달리 교육과정에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임상실습과정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고시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17], 간호학에 흥미를 없거나 자아존중감이 낮아져 부적응을 경험하여 진로 정체감에 혼돈을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를 결정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자신의 직업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그 성취감은 직업적 확신과 발전을 추구 할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진로정체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간호전문인으로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간호업무에 임하게 되면, 낮은 직업만족도와 높은 이직 의도를 갖기 쉽다고 하였다[15].

선행연구에서 간호 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내용분석연구에서 보면 임상실습과 관련되어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가 함께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 간호사 이미지와 임상실습만족도 및 전공만족감과의 관계 연구[18, 19],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 연구[1,4,20]가 많이 이루어 졌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연구변수로 한 연구에서는[9,21-24] 자아존중감이 임상실습수행도와 만족도, 우울 및 학업성취도, 리더십 생활기술,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이미지는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전문직 자아개념 등 각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연구가 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변수와의 단순한 관계 연구로 되어 있다.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이미지,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바람직한 간호사 이미지 구축을 정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이미지,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간호사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이미지,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에 대한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이 간호 대학생이 인지하는 간호사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6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경주·포항 지역에 위치한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 대학생으로 총 415명으로부터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연구에 동의하지 않은 5명을 제외하고 총 410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 준 뒤 연구에 참여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동의서와 설문지를 배부하고 개별적으로 설문내용을 작성하도록 한 후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 2.3 연구도구

#### 2.3.1 간호사 이미지

Lee et[25]이 개발하고, Yang[26]이 수정·보완한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 29문항과 일반적 특성 12문항, 총 4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방법으로는 5점 척도의 Likert scale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여 측정된 점수가 더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도구의 신뢰도는 장숙현(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5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9$  이었다.

#### 2.3.2 자아존중감

Rogenberg[27]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Jon[28]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아존중의 정도와 자아승인의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긍정적인 문항 5개, 부정적인 문항 5개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4점 평점척도로 측정된 것으로 각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4점을 주고, 부정적 문항 3,5,8,9,10문항은 역환산하여 채점되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81$  이었다.

#### 2.3.3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Ha[29]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Ha[29]의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으로 관계만족, 진로조사, 일반만족, 교과만족, 인식만족의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순수한 전공만족도에 대한 결과만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진로조사 요인을 제외한 일반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의 4개 하위요인 총 2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측정방법으로는 5점 Likert scale로 5점 척도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성 되어 있다. 하혜숙(199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50$ 으로 나타났다.

#### 2.3.4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Hollan et[30]가 개발한 MVS(My Vocational Situation)의 정체감 척도를 Kim[3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18문항으로서 진로계획에 대하여 얼마나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아주 그렇다’ 4점으로 대답하도록 되어있다. 측정된 점수총점이 높을수록 자신

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 진로정체감이 잘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Kim[3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37$ 으로 나타났다.

###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0.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연구관련 특성과 요인변수에 관한 서술통계는 실수, 백분율,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셋째, 간호사이미지,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는 피어슨 산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확인하였다.

넷째,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선형회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81.5%로 대부분이 여학생이었고, 연령은 20살이 47.8%로, 1학년이 50.2%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종교는 무교가 63.7%이고, 가족이나 친지 중 간호사가 없는 대상자가 59.8%, 입원한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59.8%,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경우는 입원 또는 병원 방문 시 간호사의 모습이 51.7%로 가장 많았다(Table 1 참조).

###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비교한 분석 결과는 Table 2-1, Table 2-2와 같다. 간호사 이미지는 성별( $t=2.90, p<.01$ ), 연령( $F=5.94, p<.001$ ), 학년( $F=12.45, p<.001$ ), 가족이나 친지 중 간호사의 유무( $t=-2.80, p<.01$ ),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에 미친 영향 요인( $F=4.86, p<.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성별( $t=-2.67, p<.01$ ), 연령( $F=7.99, p<.001$ ), 학년( $F=23.66, p<.001$ ),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에 미친 영향 요인( $F=6.09, p<.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전공만족도는 연령( $F=4.4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10)

Variables	Categories	Number of criteria(%)
Gender	Male	76(18.5)
	Female	334(81.5)
Age	20	196(47.8)
	21	110(26.8)
	22	33(8.1)
	23	44(10.7)
	기타	27(6.6)
Grade	1	206(50.2)
	2	146(35.6)
	3	16(4.0)
	4	42(10.2)
Religion	Yes	149(36.3)
	No	261(63.7)
Nurses in Family	Yes	165(40.2)
	No	245(59.8)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Yes	197(48.0)
	No	213(52.0)
Image Forming Factor	TV	59(14.4)
	N or L	22(5.4)
	Hospitalization	212(51.7)
	Nurses in Family	49(12.0)
	CP	39(9.4)
	IE	22(5.4)
	Others	7(1.7)

Table 2-1. The Difference between Nursing image,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f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410)

Variables	Categories	Nursing image			Self-esteem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Gender	Male	116.01(13.63)	2.899	.004*	24.71(6.92)	-2.667	.008*
	Female	111.39(12.30)			26.76(5.83)		
Age	20	115.42(12.50)	5.940	.000**	27.68(6.12)	7.988	.000**
	21	109.99(11.47)			26.83(5.14)		
	22	106.45(13.70)			23.48(6.13)		
	23	114.40(10.77)			22.48(6.26)		
	기타	112.56(11.45)			24.82(5.31)		
Grade	1	115.10(12.51)	12.146	.000**	27.60(6.20)	23.659	.000**
	2	111.23(11.26)			26.90(5.12)		
	3	108.06(14.99)			19.13(4.02)		
	4	103.38(12.49)			21.33(4.92)		
Religion	Yes	112.07(12.51)	-.205	.838	26.32(6.04)	-.146	.883
	No	112.34(12.78)			26.41(6.13)		
Nurses in Family	Yes	110.13(11.25)	-2.799	.005*	25.88(5.80)	-1.353	.177
	No	113.67(13.36)			26.71(6.27)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Yes	111.99(12.75)	-.390	.697	26.28(6.34)	-.304	.759
	No	112.48(12.62)			26.47(5.87)		
Image Forming Factor	TV	111.32(11.80)	4.856	.000**	25.63(5.85)	6.088	.000**
	N or L	117.91(10.31)			28.41(6.67)		
	Hopitalization	113.08(12.61)			27.64(5.80)		
	Nurses in Family	110.24(10.94)			25.33(6.26)		
	CP	106.51(14.50)			22.56(4.68)		
	IE	110.32(11.60)			24.68(5.89)		
Others	129.00(11.65)	22.29(8.69)					

N or B=Novel or Literature; CP=Clinical practice; IE=Indirect Experience, \* p<.05, \*\*p<.001

Table 2-2. The Difference between Nursing image,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f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410)

Variables	Categories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Mean (SD)	t or F	p	Mean (SD)	t or F	p
Gender	Male	82.75(16.84)	0.126	.900	45.30(9.66)	-1.174	.241
	Female	82.54(12.50)			46.82(10.29)		
Age	20	85.27(14.15)	4.453	.001*	47.40(10.88)	1.591	.161
	21	79.55(12.66)			45.27(9.92)		
	22	77.39(10.10)			43.36(8.28)		
	23	80.14(12.88)			47.02(8.74)		
	≥24	85.67(8.04)			47.17(8.66)		
Grade	1	85.75(13.68)	8.728	.000**	47.32(10.81)	2.159	.092
	2	80.08(12.88)			46.18(9.54)		
	3	76.75(11.75)			40.88(9.45)		
	4	77.90(10.31)			46.12(8.86)		
Religion	Yes	82.05(14.20)	-.596	.551	46.27(10.80)	-.406	.685
	No	82.87(12.92)			46.69(9.83)		
Nurses in Family	Yes	82.26(11.73)	-.391	.696	45.46(9.61)	-1.765	.078
	No	82.79(14.42)			47.27(10.50)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Yes	84.58(14.03)	-1.445	.149	46.16(10.18)	-.730	.466
	No	83.49(12.73)			46.89(10.19)		
Image Forming Factor	TV	82.66(12.30)	0.881	.508	46.00(8.57)	0.537	.780
	N or L	83.64(17.35)			46.18(12.06)		
	Hopitalization	82.83(14.32)			46.99(10.37)		
	Nurses in Family	81.63(9.83)			45.71(10.10)		
	CP	79.00(12.04)			47.85(9.09)		
	IE	86.18(9.13)			43.77(10.74)		
Others	86.00(18.58)	45.71(13.45)					

N or B=Novel or Literature; CP=Clinical practice; IE=Indirect Experience, \* p<.05, \*\*p<.001

Table 3. The correlation between Nursing image,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N=410)

	Nursing image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Nursing image	1			
Self-esteem	.193(<.002)*	1		
Major satisfaction	.454(<.001)**	.124(<.012)*	1	
Career identity	.129(<.009)*	.337(<.001)**	.153(<.002)*	1

\*  $p < .05$ , \*\* $p < .001$ 

Table 4. Related Factors in regards to Nursing image by using multiple regression. (N=410)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69.998	4.124		16.971	.000*
Self-esteem	.274	.091	.132	3.013	.003*
Major satisfaction	.427	.041	.448	10.247	.000*
Career identity	.160	.061	.129	2.632	.009*
Adj R <sup>2</sup>			.332		
F(p)			68.192(<.000)		

\*  $p < .05$ , \*\* $p < .001$ 

$p < .01$ ), 학년( $F=8.73$ ,  $p < .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진로정체감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3.3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자아존중감, 및 진로 정체감의 관계

간호사 이미지는 5점 만점에 3.82점,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2.64점,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3.76점, 진로정체감은 4점 만점에 2.59점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3와 같으며, 간호사 이미지는 자아존중감( $r=.193$ ,  $p < .01$ ), 전공만족도( $r=.454$ ,  $p < .001$ ), 진로정체감( $r=.129$ ,  $p < .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 $r=.124$ ,  $p < .01$ ),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 $r=.337$ ,  $p < .001$ ),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 $r=.153$ ,  $p < .01$ )이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3.4 간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선형회귀 분석으로 회귀모형 분석결과 간호사 이미지에 자아존중감( $\beta=.132$ ,  $p < .01$ ), 전공만족도( $\beta=.448$ ,  $p < .000$ )가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66.192$ ,  $p < .000$ ), 이들 변수들의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설명력은 33.2%였다(Table 4 참조).

## 4. 논의 및 고찰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바람직한 간호사 이미지 구축을 정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 대학생이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의 평균이 5점 만점에 3.82점이었으며, 이는 간호학생이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와 자아존중감 및 전문직사회화의 관계 연구한 Choi[1]의 결과 평균이 3.74점,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업성 핵심요소간의 관계 연구에서 간호사 이미지 평균이 3.65점[4], 간호학생들의 무력감과 간호이미지 관계에서 임상실습만족도의 매개효과 연구에서 간호사 이미지 평균이 3.68점[19]인 것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보였고, 간호대생과의대생의 간호사 이미지를 비교한 연구인 Ku et al[32]의 연구결과 간호사 이미지 평균이 3.84점, 일개 간호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의 관련성 연구에서 간호사 이미지 평균은 4점[4] 인 것에 비하면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다. 1학년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97점, 2학년 3.84점, 3학년 3.73점, 4학년 3.56점 순으로 1학년이 간호사 이미지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이는 Choi et의 연구결과[1]와 Lee의 연구결과[17]에서 임상실습에 많이 노출되지 않는 1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이미지 점수가 높게 나타난 점은 임상실습에 노출된 학년들이 실습 환경에서 만나게 되는 간호사에 따라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사 이미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년별로 차별화된 교과과정과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모색하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 내용이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2.64점으로 Oh의 연구결과[7]와 Sung et의 연구[33]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2.65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한편, Chung의 연구 결과[22]인 3.08점, Young et의 연구결과[23] 자아존중감 점수가 3.05점 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본 연구대상자는 1학년과 2학년이 대부분인 반면, Chung[21]과 Young et[23]의 연구대상자는 3학년과 4학년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하여 차이가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간호학 만족도 및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임상실습 만족도를 증진시키며,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므로, 간호교육에서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24,34]. 따라서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회성 함양과 자기 존재의 의미와 자기 존중 정신을 깨달으며, 인간존중의 정신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교육과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공과목에서 교수가 전무직 간호사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어 간호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평점이 3.76점으로 나타나 같은 도구를 사용한 Ka et의 연구[32]에서의 전공만족도는 3.68점,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과 전공만족도와의 관계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 점수는 3.72로 유사하게 나타나났으며, Young et의 연구[23]에서는 대상자가 3학년과 4학년학생들로 임상실습을 통하여 간호사들의 힘든 임상현장에서의 업무 부담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어려운 교과과정 속에서 전공만족도 평균점수가 3.19점으로 나타

난 것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만족도 점수가 낮아지는 것과 유사하다. 선행연구에서 보면, 교과만족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학과는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스트레스가 많은 교과과정의 영향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고학년의 여러 스트레스 요인들을 파악하여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선배나 졸업생과의 만남, 교수와의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 정도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은 평균 2.59점으로 나타났다. Hur et의 연구결과[35]에서는 간호학과 3, 4학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 평균점수는 2.47점, 3년제 학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Dhoi의 연구[36]에서는 2.27점으로 본 연구의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간호대학생 3, 4학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 연구에서는 2.72점[23], 1학년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2.67점으로 본 연구결과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 학생들로 본 연구의 1학년 학생들의 진로정체감 평균점수가 2.62로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연구대상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저학년보다 고학년의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이는 고학년일수록 직접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노력에 따른 사고와 신뢰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37].

다섯째, 간호사이미지,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결과, 간호사이미지,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사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한 Ka et[32]의 연구결과와 간호학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사이미지 점수가 더 높다는 조현하, 김남희[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본 연구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조희와 이규영[1]의 연구에서도, 간호사이미지와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도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간호사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이 유의하다고 한 최정, 하나선[31]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전공만족도가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보다 간호사이미지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영욕과 이선옥[23]의 연구결과에서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가 진로정체감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김명아 등의 연구[38]에서 자아존중감이 진로태도 성숙에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 태도에 성숙한 태도를 가진다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다. 그리고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업성 [39,40]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가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러나 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없어서 비교가 할 수 없지만, 선행 연구결과를 볼 때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에 필요한 요소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자아정체감과 간호전문인으로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전문직업에 대한 정체감이 이라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이 간호사이미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간호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간호사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을 향상시켜 진로에 대한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한다고 생각되므로 자아존중프로그램이나 리더십 프로그램과 전문인으로 필요한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바람직한 간호사 이미지 구축을 정립과 올바른 진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경주·포항 지역의 간호 대학생 4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경우는 입원 또는 병원 방문 시 간호사의 모습이 51.7%로 가장 많았다. 간호사이미지는 성별, 연령, 학년, 가존이나 친지 중 간호사의 유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미친 영향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은 성별, 연령, 학년,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미친 영향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전공만족도는 연령, 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사이미지,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간

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간호사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선행회귀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의 변수들이 간호사이미지에 대한 설명력이 33.2%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 간호사이미지가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시킨다면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직업인으로 성장을 위해 간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기본소양교육과 인성교육을 병행하고,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봉사동아리 활동 및 나눔운동을 펼쳐나가는 교내외 활동을 통해 학생 개인에게 긍정적 간호사이미지를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이는 다시 진로정체감과 자아존중감 향상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경주, 포항 지역에 위치한 3개 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중인 학생들을 임의표집하여 추출하였으므로 다른 도시와 비교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룬 일반적 특성 이외에 간호사이미지,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 특성을 더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를 확립시켜주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1] J. Choi & N. S. Ha. (2009). The Relationship Among Image of Nurses, Self Esteem and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15(1), 54-63.
- [2] H. J. Park & J. W. Oh. (2014).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2), 417-426.
- [3] S. A. Park. (2008). *The Portrayal of Nurses in Mass Media*. a Content Analysis of Hospital Administration Journals. A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Seoul.
- [4] H. H. Cho & N. H. Kim. (2014).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 Image, and Core Elem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that Nursing Students Perceiv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20(4), 548-557.
- [5] S. J. Park & S. J. Park. (2014). Content Analysis of Nurse Imag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6), 3696-3705.
- [6] M. H. Sung. (2008.) The Relationships Between Peer Attachment, Self-esteem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n Society of Public Nursing*, 20(1), 84-96.
- [7] J. H. Oh. (2014).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1), 873-884.
- [8] H. I. Lee. (2008). Correlations among Self-Esteem, Dep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Society of Public Nursing*, 20(1), 97-107.
- [9] M. T. Tessema et al. (2012).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major curriculum: evidence from nine years of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2), 34-44.
- [10] E. Jamelske. (2009). Measuring the impact of a university first-year experience program on student GPA and retention. *Higher Education*, 57(3), 373-391.
- [11] J. A. Kim. (2013). Affecting Factors of Career Satisfaction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4), 339-349.
- [12] J. Y. No, S. J. Park & D. Y. Bae. (2012).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and Nurse's Imag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8(2), 88-94.
- [13] J. L. Holland, D. C. Gottfredson & P. G. Power. (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39(6), 191-200.
- [14] H. Cho & G. Y. Le. (2006).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0(2), 163-173.
- [15] I. O. Moon & G. W. Lee. (2010).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6(1), 83-91.
- [16] K. H. Lee. (2010) Mediation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powerlessness and Nursing Imag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6(1), 26-34.
- [17] J. Y. Lee. (2011). Correlations between Nurse Image, Satisfaction of Major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in a Diploma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llege Education*, 12(3), 213-224.
- [18] M. J. Ka et al. (2015).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Journal of College Education*, 44(1), 1-15.
- [19] H. J. Lee. (2014). Image of Nurse Perceived by Nursing Student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2), 129-135.
- [20] E. S. Lee & M. S. Park. (2017). A Study of Convergence Relationships among Nurses' Imag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 311-320.
- [21] M. S. Chung. (2009). The relations of Self-Esteem, Practical Performance, and Practical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1), 670-681.
- [22] H. Y. Lee. (2009). A Study on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Leadership Life Skill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3), 278-284.
- [23] Y. O. Young & S. O. Lee. (2012). The 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on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2), 979-989.
- [24] M. H. Jeong.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2(2), 170-177.
- [25] H. R. Lee et al. (1992). A study on nurse's imag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5(1), 45-65.
- [26] I. S. Yang. (1998).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Determinants the Imag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4(2), 289-306.
- [27] M. Rog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8] B. J. Jon.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1(1), 107-129.
- [29] H. S. Ha. (2000). Indicator for the department satisfaction of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1(1), 7-20.

- [30] J. L. Holland, D. C. Daiger & P. G. Power. (1980).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 Counseling Psychology, Press.
- [31] B. H. Kim.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e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 [32] M. J. Ku et el. (2014). A Study on Nurses' Image Perceived by Nursing and Medeical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Ewha Nursing*, 48(1), 1-14.
- [33] K. W. Sung, O. G. Kwag & W. H. Lee(. 2010). Comparison of Anger Expression, Assertive Behavior, and Self-esteem between a Nursing Student Group and an Educational Student Group.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 21(1), 1-11.
- [34] N. S. Ha & M. S. Choi.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Styles and Self-esteem,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stration*, 11(1), 13-21.
- [35] M. R. Hur et el. (2015). Clinical Practices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Education*, 49(1), 151-165.
- [36] E. H. Choi. (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dentity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2(1), 15-21.
- [37] S. K. Lee. (2006). Korean high school students' vocational identity and school related varabl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therapy*, 18(3), 613-627.
- [38] M. A. Kim et el. (2006).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Korea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3(4), 383-391.
- [39] E. S. Lee & M. S. Park. (2017). A Study of Convegence Relationships among Nurses' Imag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Journal od Digital Convergence*, 15(1), 311-320.
- [40] S. Y. Yu. (2014). What is the Image of Nurses?:Comparison Major and Non-Major Students. *Journal od Digital Convergence*, 12(10), 353-361.

김 영 희(Kim, Young Hee)

[정회원]



- 2012년 8월 : 중아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1월 ~ 현재 : 위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 성인간호, 노인간호

▪ E-Mail : badughi@nate.com

권 영 채(Kwon, Young Chae)

[중신회원]



- 2012년 2월 : 인제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학과 (보건행정학 박사)
- 2015년 8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과 박사과정수료
- 2012년 10월 ~ 현재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보건행정, 지역사회

▪ E-Mail : nahante55@hanmail.net